

中國 歷史紀行

柳 永 烈*
 李 載 禎*
 林 炳 泰*

본교 사학과와 이재룡교수와 林炳泰교수 그리고 본인은 大成産業의 여비지원을 받아, 1991년 6월 29일부터 7월 12일까지 2주일 동안, 중국 주로 만주지역의 史蹟地를 답사하였다. 그 결과 보고를 곁하여, 당시 보고 듣고 느낀 점의 일부를 피력 하고자 한다. 우리 일행의 답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답 사 지 역
1991			
6. 29	서울	北 京	故宮, 萬里長城, 天壇
7. 1	北 京	延 吉	延吉市内답사
7. 2	延 吉	長 白 山	靑山里, 和龍, 白頭山
7. 3	長 白 山	図 們	龍井, 大成中學
7. 4	図 們	牧 丹 江	図們, 汪清, 東京城渤海遺址, 朝鮮族마을
7. 5	牧 丹 江	延 吉	牧丹江, 抗日烈士紀念塔, 八女投江塔
7. 7	延 吉	北 京	延邊大學, 明東村, 民俗村, 天安門
7. 9	北 京	齊 南	齊南, 曲阜, 黃河
7. 11	齊 南	威 海	煙台, 威海
7. 12	威 海	仁 川	

* 人文大學 史學科 教授

1991년 6월 29일, 우리는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홍콩을 거쳐 北京에 도착하였다. 北京空港에서 시내까지 40여분 동안 2차선의 아름다운 숲속길을 거의 쉬지않고 달렸다. 그만큼 공항로가 한산하였다.

6월 30일에는 故宮과 萬里長城·天壇을 답사하였다. 故宮 곧 紫金城은 明·清代의 궁전으로, 동서 750m, 남북 1000m, 건평 999칸에 달하여 그 웅장함을 자랑한다. 그러나 자금성은 사방이 높이 10m의 붉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兵營을 방불케 하며, 성내에는 거의 나무가 없는 ‘無木之城’으로 미려함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건물의 赤色丹靑과 황금색 기화는 눈을 피곤케 하였다. 안내원의 설명에 의하면, 붉은 성벽과 白色 난간 그리고 황색 유리기와가 중국 궁중건축 양식의 특징이라 한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우리 나라의 故宮이 세련되고 조화가 잘되어 있음을 새삼 느꼈다.

紫金城을 뒤로하고 우리는 北京 서북쪽 약 70km지점에 있는 八達嶺을 통하여 萬里長城에 올랐다. 안내원의 말에 의하면, 예로부터 “長城에 올라야 대장부라 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고 한다.

“萬里長城을 넘어온 民族은 결국 中國化되었다”는 북경대학 교수의 말이 머리에 서 맴돌았다.

7월 1일, 48인승 비행기로 북경공항을 출발하여 20여분 동안 山地를 지나, 1시간 30분 이상 평야지대를 날아서 沈陽에 도착하였다. 古代 우리 민족의 활동무대였던 이 평야지대에 구비쳐 흐르는 란하·소릉하·대릉하·요하 등은 마치 우리 선인들의 옛 일을 말해주는 듯 가슴을 설레게 하였다.

沈陽 故宮은 淸나라 궁궐의 典型이다. 東路의 大政殿과 十王亭은 만주족의 八旗制를 상징한다고 하며, 지붕 기와의 녹색테가 이채롭다. 고궁내에서는 조선의 소현세자와 봉림대군(孝宗)이 볼모로 잡혀있던 허름한 건물이 아직도 남아 있다. 沈陽에는 東陵과 北陵이 있다. 東陵은 淸太祖 누루하치의 능으로 청대 능의 典型이며, 北陵은 청태종의 능으로 더욱 규모가 웅장하다.

沈陽에서 1시간 30분 동안 구릉지대를 날아 延吉空港에 착륙하였다. 공항 대합실은 소도시의 시외버스 대합실을 연상케 하였다. 延吉은 연변조선족자치주의 首都이다. 연변의 조선족은 벼농사를 주로 하며, 漢族은 옥수수 재배를 주로 한다고 한다. 연변의 특산물로는 사과와 배를 접붙힌 사과배가 유명하다는데, 계절이 맞지 않아



沿邊朝鮮族自治州의 수도 延吉의 중심지에서, 좌로부터 임병태교수, 이재룡교수, 필자.

맛볼 수 없는 것이 섭섭했다.

때마침 中國共産黨 창당 70주년 행사주간이어서, “共産黨이 없으면 新中國이 나아갈 수 없다”는 구호가 도처에 보였다. 나는 안내원에게 “중국통치자들이 지금도 중국을 共産主義的 이상국가로 만들고자 하는가”라고 물었다. 북경대학을 졸업하고 金日成大學에서 1년간 한국어를 배웠다는 안내원은,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할 것이며, 中國共産黨은 정당의 명칭일 뿐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대답을 했다. 나는 1년전 1990년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공산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中國만이 共産主義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중국 지도부의 생각이라는 말을 들은 일이 있다. 이념이 인간을 위해 있어야지, 인간이 이념을 위해 있어서야 되겠는가?

7월 2일, 延吉을 떠나 龍井과 臥龍을 지나 靑山里에 도착하였다. 이 곳은 1920년 10월 하순, 金佐鎭·洪範圖 등이 이끄는 2,000여명의 독립군이 5,000여명의 일본군과 싸워 대승을 거둔 역사적인 장소이다. 청산리는 이곳에서는 현재 靑山嶺으로 불리는데, 50여리에 달하는 길고 깊은 계곡이다. 독립군들의 함성이 계곡에서 들려오는 것만 같다. 우리는 청산리를 뒤로 하고 安圖·松江鎭·二道白河를 지나 天地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길이 가파른 것을 전혀 느낄 수 없었으니 白頭山이 얼마나 웅대한지를 짐작할 수 있겠다.

우리 일행은 2시 30분 해발 2670m인 백두산 天文峰에 올랐다. 나는 백두산 등정의 감격과 더불어, 민족의 靈山인 백두산에 중구의 땅을 통하여 오르는 가슴아픔을 느끼며 하산하였다. 천지호텔에서 하루 밤을 머물렀다. 호텔의 물은 손이 시려울 정도로 차거웠다. 그러나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더운물은 나오지 않았고, 호텔에서 내주는 타올은 여전히 축축이 습기가 있었다.

7월 3일, 우리는 독립군의 발자취를 그려보며 靑山里 50리 길을 넘어, “선구자” 노래의 “해란강”으로 유명한 龍井 시내로 들어갔다. 시내 중심지에 있는 大成中學校를 방문하여 독립운동관계 인물사진자료와 해방전 간도지방의 학교일람표, 그리고 中國內朝鮮族분포도 등을 열람하였다. 조선족분포도에 의하면, 중국내 조선족 총수는 176만 4천명이고, 연변 인구 약 200만 중 조선족 인구는 81만 3천이었다. 결국 연변 조선족 인구는 중국내 조선족 전체인구의 50%에 육박하고, 연변 전체인구의 40% 이상에 달한다. 듣건대 延吉市 인구 30만 중 15만 정도가 조선족이라 한다.

북한의 南陽市를 마주보는 圖們에서 하룻 밤을 머물렀다. 도문시 인구 12만 중 57%가 조선족이라 한다. 두만강에서 만난 조선족의 말에 의하면, 북한에 식량난이 심하여 북한주민은 연변의 친척을 방문할 때, 마른명태를 가져오고 옥수수과 의류 등을 얻어간다고 한다. 또한 북한에서는 연변에 친척이 있으면 결혼에 좋은 조건이 된다고 한다. 북한쪽 산에 “속도전”이라고 크게 새겨진 흰색 글씨가 딱하게만 느껴졌다.

7월 4일에 기차로 圖們을 떠나 汪清을 지나 黑龍江省 東京成에 도착하였다. 중국내 조선족 176만 중 흑룡강성에는 4만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渤海上京遺址博物館 연구주임 魏學臣씨의 안내를 받아 발해궁궐터를 답사하였다. 그리고 함경북도 출신의 朝鮮族 吳基寶씨의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상을 듣고 보았다. 이곳 농촌의 연간 평균 소득은 중국돈으로 4~5천원 정도라 한다. 도시의 부부소득을 합한 것과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

東京城 永安에서 90km 떨어진 牧丹江市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1900년에 러시아가 의화단사건을 구실로 16만의 大兵으로 만주를 점령했을 때, 그 거점이 바로 이 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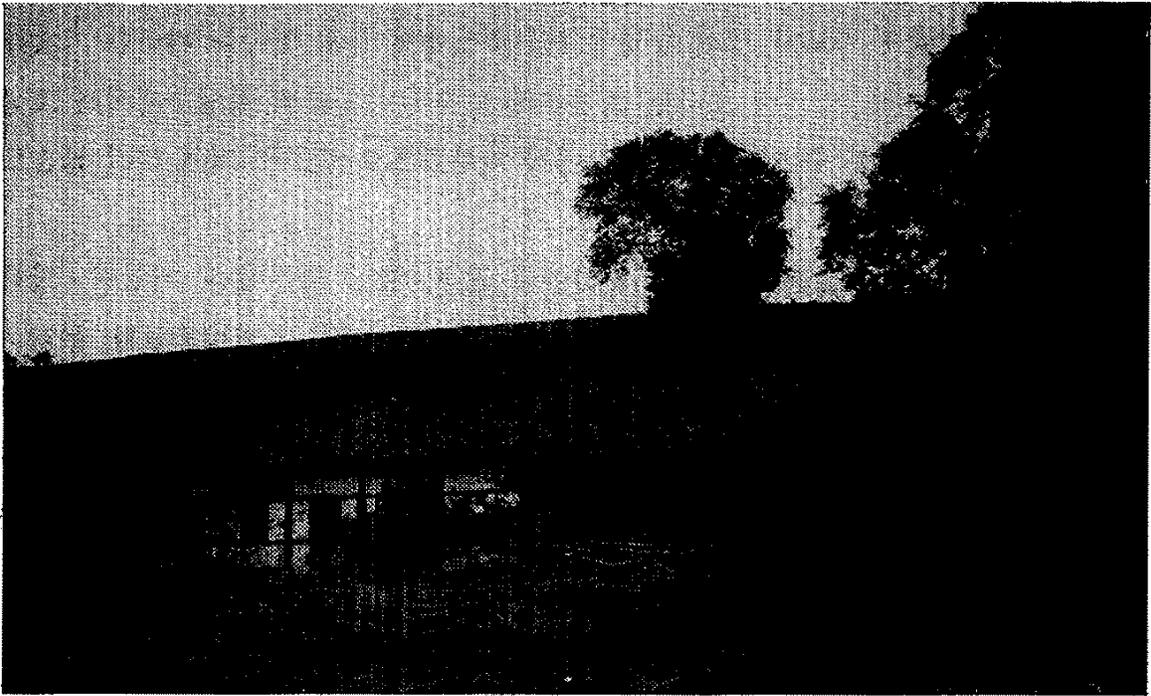
丹江이었다. 목단강시는 바둑판형으로 잘 정돈된 도시로, 인구는 70만인데 약 2만 명의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내가 1년전에 이곳에 왔을 때 안내했던 李光南씨를 北山호텔에서 다시 만나 너무도 반가웠다.

7월 5일, 아침 일찍 호텔 뒷산에 있는 北山公園에 가보니, 抗日烈士紀念塔 앞에서 30여명의 남녀노소가 왈츠춤으로 아침운동을 하고 있었다. 공원 입구 路邊에는 거대한 場이 서, 각종 야채류와 식료품·만두탕·의류 등이 매매되고 있었다. 아침 식사 후 江邊公園에 가보니, 공원 중앙에 抗日투쟁에서 숨진 열사를 기리는 八女投江紀念碑가 서있는데, 거기에 조각된 조선족의 모습에서 만주의 항일투쟁에서 조선족의 위치를 가늠해볼 수 있었다. 목단강에서 기차편으로 도문을 거쳐 다시 延吉로 돌아갔다.

7월 6일, 과거 日本關東軍 수비대 자리였던 延邊大學을 방문했다. 서일권·방학봉·권철 등 세분 교수를 만나 간담회를 가지고, 만주지역의 유적발굴현황, 독립운동사 연구동향, 자료교환 문제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연변대학은 학생 3천여명, 교수 600여명 규모이고, 한국관계 연구소로는 민족문제연구소·조선문제연구소·조선어문연구소·고전연구소 등이 있다. 학생들은 연간 1~2개월 정도 군사교육을 받으며, 교과과정의 30% 정도는 (사회주의)사상교양에 할애된다고 한다.

권철 교수의 안내로 和龍縣 明東村을 답사하였다. 1906년에 李相高·李東寧·鄭淳萬 등 애국계몽파 인사들은 新天地인 北開島로 건너가, 용정에 瑞甸書塾을 열고 근대교육과 민족주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1907년 일제 통감부가 용정에 간도파출소를 설치함에 따라, 서전서숙은 일제의 탄압과 재정난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 서전서숙 폐쇄 후, 애국계몽파 인사들은 龍井에서 40리 떨어진 和龍縣 長財村에 明東學校를 세우고 명동촌을 건설하였다. 명동학교는 원래 鍾城출신 한학자 金躍淵이 세운 圭岩齋서당을 鄭載冕 등이 明東書塾으로 개편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정재면은 평양 송실학교 출신으로, 新民會의 북간도교육단 단장으로서 이곳에 파견되어, 명동서숙의 교무주임이 되어 철저한 근대교육과 민족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이것을 중등과정인 명동학교(기독교학교)로 개편하고 明東教會도 설립하였다. 김약연도 기독교로 개종하여 뒷날에 목사가 되었다. 명동학교는 1920년 10월, 일제 토벌군에 의하여 “독립군의 소굴”로 지목되어 불태워 없어졌고, 명동교회는 아직도 남아있어

옛 역사를 증언하고 있었다. 우리는 명동학교 학생들이 군사 훈련을 받았다는 산기슭을 돌아보고, 멀리 산마루 長財村에 묻힌 김약연의 묘를 향하여 머리를 숙였다. 지금부터 85년전 우리 애국지사들 특히 송실출신 정재면 등의 구국활동의 현장을 돌아보니 마음이 숙연해졌다. 이곳 조선족의 집은 전형적인 함경도식의 초가집이었다.



평양 송실학교 출신이며, 新民會의 북간도교육단 단장으로 파견된 鄭載冕이 독립운동간부의 양성을 위해 明東學校와 함께 세운 明東教會

우리는 明東村에서 애국시인 尹東柱의 生家터를 둘러보고, 연길로 가는 도중에 용정시 동산에 있는 운동주의 묘소와 3·13反日義士陵(1919년 3·1운동당시)을 참배하였다.

7월 7일, 오전 9시 40분 48인승 비행기로 연변공항을 출발하여 북경으로 향하였다. 그런데 1시간 정도 지나, 아무런 알림도 없이 어느 곳에 착륙하였다. 알고 보니 給油를 위해 예정에 없던 長春에 일시 착륙했던 것이다. “長春에서는 늙지 않습니다. 長春에 한번 오면 10년 젊어집니다”고 말하던, 지난해 장춘에 들렀던 때의 여자안내원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급유를 마친 비행기는 심양을 경유하여 3시에 북경에

도착하였다.

7월 8일에는 天安門광장 등 북경일원을 답사하고, 오후 6시 30분에 齊南行 비행기를 타기 위해 북경공항에 갔다. 출발 예정시간 1시간이 넘도록 감감 무소식이더니, 결국 뚜렷한 이유 없이 제남행 비행기는 缺航이라 한다. 제남행 손님 20여명은 공항 근처 四海호텔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9일 온종일 대기상태에 있다가, 오후 6시 10분 33인승 비행기로 북경을 떠나 2시간 30분만에 제남에 도착하였다. 북경에서 제남까지는 산 하나 보이지 않는 광대한 평야지대였다. 山東省의 중심지인 제남의 전체 인구는 514만, 제남시 인구는 250만이며, 기후는 중국 전체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 한다.

齊魯호텔에서 하룻 밤을 쉬고, 7월 10일 우리는 8인승 승용차로 曲阜로 향했다. 안내원은 승용차 대여비로 중국돈 420원을 요구하였다(이 금액은 성인 2개월분의 봉급에 해당된다). 그 이유는, 어제 曲阜行 기차편이 예약되어 있었는데 비행기의 결항으로 취소되었고, 기차편은 시간이 맞지 않아 별도로 승용차를 빌리지 않으면 曲阜에 갈 수 없다는 것이다. “비행기의 결항으로 泰山 일정을 포기한 우리에게 제남행 교통비까지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은 말이 안되니, 그것은 마땅히 여행사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헛 일이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였다. 연변에서 明東에 갈 때에도 저들은 예정에 없다하여 200원의 교통비를 별도로 요구했고, 발해유적지에 갈 때에는 하루 일정의 시간이 넘었다 하여 차량 오버차지로 200원을 요구했었다. 고기맛을 본 중처럼 중국인이 돈벌이에 혈안이 된 것인가?

儒敎思想의 고향인 曲阜에서 孔廟와 孔林·孔子墓 등을 답사하고, 煙台·威海를 거쳐, 7월 12일 10시에 인천항에 도착하여 2주일 동안의 중국 역사기행을 마쳤다.

우리는 중국 역사기행을 통하여 중국의 거대하고 풍부한 문화유산에 경탄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인민정부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느 것을 보고도 감탄한 일은 전혀 없었다. 또한 우리는 오늘날 중국사회에 “全民經商의 風”이 있다는 말대로, 모든 중국인들이 상업으로 돈을 벌고자 하며, 윤리성이 결여된 물질만능의 풍조가 중국 대륙을 휩쓸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기행기간에 “중국은 한국보다 20~30년 정도 낙후되어 있고, 북한은 중국보다 10~20년 정도 낙후되어 있다”던가, “중국사람은 미국에 친척이 있으면 부자가 되고, 연변조선족은 한국에 친척이 있으면 부자가 되며, 북한사람은 연변에 친척이 있어야 부자가 된다”는 항

간의 말속에서 중국과 북한의 현실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었다. 끝으로 우리의 중국역사기행은 우리 나라 독립운동의 현장과 발해의 유적지, 그리고 중국의 사적지 등을 실제로 답사함으로써, 책을 통하여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역사의식과 안목을 갖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믿는다. 이러한 기회를 갖도록 여비를 지원한 大成產業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